
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2. 24.(수) 배포</p>		 <p>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</p> <p>*성년이 바꾼 오늘 만든 내일</p>		
	보도일	2021. 2. 24.(수) 브리핑 시(15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·방송·통신 2. 24.(수) 브리핑 시(15:00)부터 보도 가능			
담당과	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	담당자	과 장 천범산 (☎ 044-203-6883) 사무관 김홍오 (☎ 044-203-6313) 사무관 김진욱 (☎ 044-203-6806)		

「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」 기본계획 발표

- ◆ 혁신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통한 신기술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(2026년까지)
- ◆ 지역 간·대학 간 교육격차 해소, 국가 수준의 첨단 분야 인재양성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월 24일(수)에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‘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’ 기본계획을 심의·확정하였다.
- 이번 사업은 「한국판 뉴딜 종합계획」 발표(2020.7.14.) 이후 반영된 신규 과제로, 공유·개방·협력을 토대로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.

< 혁신공유대학 개념도(안) >



□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첫째, 총 21개 중 주요 3개 산업(BIG3: 차세대 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헬스), 탄소중립(에너지 신산업) 등 8개 신기술 분야별로 1~3개의 연합체(권소사업)를 선정하고 2021년 832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.

※ 사업기간 : 6년(2021~2026년, 3+3년)

※ 8개 분야 × 분야별 평균 102억 원 + 16억 원(사업 관리 및 산업교육센터 운영)

< 8개 분야 >

- ❖ ① 인공지능, ② 빅데이터, ③ 차세대(시스템/지능형) 반도체, ④ 미래자동차, ⑤ 바이오헬스(맞춤형 헬스케어 포함), ⑥ 실감미디어(콘텐츠)(증강현실·가상현실 포함), ⑦ 지능형 로봇, ⑧ 에너지 신산업(신재생 에너지)

- 지원 분야는 앞으로 사업 성과와 지원 필요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- 둘째, 신기술 분야 교육 역량을 결집할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한다.

- 여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자재 등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 분야 교육·연구 방법(노하우)을 가진 교원, 관계기관,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는 등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-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신기술 분야별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고 양질의 교육 자료(콘텐츠) 및 전문가, 협력기관을 공동으로 찾아 활용한다.

- 셋째, 신기술 분야별로 공유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.

- 대학 간 공동운영 및 대학별 기존 전공과 유기적 결합이 용이한 과정(모듈형 과정)을 개발하고 인증(마이크로디그리)·학위 과정으로 운영한다.

- 기존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이 자유롭게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**수준별, 분야별 과정으로** 제공한다.
- 신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**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**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**질을 관리**한다.

※ (가칭) ‘교육과정심의위원회’를 구성하고 심의 및 환류체계 구축

- 넷째, 희망하는 학생에게 **신기술 분야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교육 안전망**을 구축한다.

-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신기술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기과정 위주에서 벗어나 **수준별 학위과정으로** 지원하고 **취업도 연계** 지원한다.
-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**학사제도를 유연화**하고 대학 간 **상호 개방**을 추진한다.
- 온라인 강좌를 **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케이무크) 누리집**에 탑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 소속된 학생과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- 연합체(컨소시엄)는 주관대학 1개교, 전문대학 1개교를 포함한 **4~7개교**로 대학이 **자율적으로** 구성한다.

※ 수도권 및 지방을 각각 40% 이상 포함

- 참가를 신청한 연합체(컨소시엄) 수 및 규모(대학 수), 전체 예산 규모(48개교 내외) 등을 토대로 분야별로 선정할 연합체(컨소시엄) 수를 정하게 된다.
- 2월 26일(금)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선정평가를 거쳐 **4월 중으로 참여대학(컨소시엄)을 확정**할 예정이다.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간 경쟁에서 공유와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간, 대학 간 역량 차이를 뛰어넘어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「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」 사업 기본계획

